

통일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문체 차관 장미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 방송통신위원장 인선 미뤄 산자장관 '업무 연결성' 유임

윤석열 정부가 29일 첫 개각을 단행하며 2기 내각을 출범시켰다. 신임 통일부장관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전 부산고검장)가 지명됐다.

또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차관으로 차출하는 등 차관 12명을 교체했다.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깜짝 발탁됐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새 인사를 발표했다.

차기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김영호 교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이날 취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재진과 만나 "원칙을 갖고 국정문제를 이행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엔 김홍일 변호사가 기용됐다.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변호사는 충청남도 예산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또 2009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발탁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다.

김 변호사는 지명 직후 "여러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인선을 미뤘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방통위원장과 관련해 "여차피 빈 자리"라며 "추후에

발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으로 공석인 자리의 인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장관의 경우 업무 연결성을 위해 교체를 미뤘다는 분석이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비서관 5명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는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맡게 됐다.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이해도가 높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은 각 부처의 차관으로 이동해 집권 2년차 국정 장악력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미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장 교수는 대한민국 여자 역도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운 인

물로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낸 스포츠 스타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인물)"이라며 "체육계에 생동감을 불어넣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안섭 기재부 예산실장이 승진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비서관을 맡았던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노동부 차관에 지명됐다. 오기용 현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외교부 2차관에는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통일부 차관엔 외교부 출신인 문승현 주태국대사가 중용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김재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맡는다.

내정자들은 7월3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화순 탄광' 오늘 폐광... 정부 "지원책 조속 마련"

118년의 역사를 가진 화순 탄광이 30일 문을 닫는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 화순 탄광은 30일 폐광을 앞두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노사정 간담회를 통해 대한석탄공사가 소유한 전남 화순탄광,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을 조기폐광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지난 2월 대한석탄공사 노사는 올해 6월 말 전남 화순탄광을 시작으로 내년 태백 장성탄광, 2025년 삼척 도계탄광을 폐광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대한석탄공사 탄광은 경도가 깊어지고

생산 설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돼 왔다.

또 연탄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석탄 생산원가도 급증하고 있어 매년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규모와 정부 재정소요도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산업부는 조기폐광을 통해 1조원의 국가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조기폐광 지역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석탄 대체산업 발굴·육성 등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 김덕모 그린카진흥원장 등이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 모빌리티, 뿌리산업, 가전로봇 등 14대 뿌리 기술 기업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달 1일까지 열리며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광주 그린카 진흥원 등이 주관했다. 나건호 기자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지방사업 국비 81억 확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은 지역구 4개 군과 공동 노력을 통해 15개 사업에 총 81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보된 국비는 도로 등 주민 편의사업,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및 교량 정비, 문화 시설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담양군은 농어촌도로 102호선 수복 나산지구 교차로 개선 8억원, 어르신 보행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2억원, 월산면 도동소하천 정비 3억원, 장평 신기마을 진입교량 재가설 8억원 등 4개 사업, 21억원을 확보했다.

함평군은 학교면 급송리 군도 10호선 선형 개선사업 2억원, 학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4억원, 군도 12호선 해보면 밑재 위험

도로 정비사업 3억원, 함평읍 농협·국도 정보공사 도로 확포장 10억원, 구 국도 23호선 위험도로 침하정비 1억원 등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영광군은 장애인 취·창업 전문 교육지원센터 설치 7억원, 흥농 수향교 보수보강공사 2억원, 봉전 소하천 정비사업 11억원 등 3개 사업에 20억원이 반영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호남권 최대' 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개막

내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호남권 최대 산업전인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가 29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 여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는 완성차, 자율주행차, 자동차 소재부품과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14대 뿌리기술, 가전, 드론, 로봇 등으로 300개사 500부스 규모다. 관련 제품과 기술 전시, 기술세미나,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 김경만·양향자 국회의원, 강종만 영광군수, 알리 이자디(Ali Izadi) 블룸버그NEF 아태지역 대표,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참가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개막식에 앞서 '미래차 대전환, 광주의 선택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원탁회의는 알리 이자디(Ali Izadi) 블룸버그NEF 아태지역 리서치 대표가 발

제자로 나선 가운데 강기정 시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권문식 고문(前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지역 부품업체 관계자 30명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미래차 대전환에 따른 글로벌 산업 동향과 이에 따른 광주의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환영사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미래산업 기회도시를 산업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광주는 반도체 특화단지,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광주 미래산업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이재명, 광주·전남 수해 상황 점검... "대비에 만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광주시와 전남도의 수해 상황을 점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대표는 이날 오전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통화해 광주·전남지역의 수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대표는 특히 인명 피해 현황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사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밝혔다"고 전

했다.

이어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각 시도당에 수해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와 대비를 할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영록 "재해위험지구 선조치 후보고 시스템 가동"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를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전 재난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엔 곡성군 장선리 제방 유실 위험지와 신기리 산사태 취약지를 방문해 계속되는 비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전남지역은 지난 28일까지 4일간 22개 시·군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돼 구례 264mm, 곡성 230mm 등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잇따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2020년 집중호우로 유실된 제방을 살피고 "제방 유실로 피해가 큰 주민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전직원 비상근무 등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소집한 호우경보 대비 재난 대책회의에선 '선조치 후보고' 등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30일까지 이틀간 100~200mm의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기 때문이다. 최황지기자